ISSN 2733-6239(Print) ISSN 2733-6247(Online)
©Copyright 2025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https://doi.org/10.5659/JAIK.2025.41.5.145

『국제양식: 1922년 이래의 건축』(1932)에 나타난 '탈기능적' 맥락에 관한 연구

Examining the 'Post-Functional' Context in *The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since 1922* (1932)

최 용 혁* 김 현 섭**
Choi, Yong-Hyeok Kim, Hyon-Sob

* 고려대 건축학과 석사 수료, Master's Course Student,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Korea
**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Korea
(Corresponding author: archistory@korea.ac.k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t-Functional' context revealed in The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since 1922 (1932), one of the earliest analyses of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which flourished between 1922 and 1931. Authors, Henry-Russell Hitchcock and Philip Johnson, incorporated various advancements in modernism traditionally equated with functionalism. However, in the book's preface, Alfred Barr Jr. noted that 'Post-Functional' was initially considered as a term for this new architectural style instead of 'International,' challenging the common association between modernism and functionalism. Th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Post-Functionalism' by analyzing the original text of The International Style and the evolving meanings of function in architecture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Hitchcock and Johnson criticized 'anti-aesthetic functionalists' for neglecting the artistic dimension of architecture and highlighted architects who moved beyond rigid functionalist constraints. In this context, 'Post-Functionalism' can be understood as 'aesthetic functionalism,'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excessive emphasis on economy and efficiency. While The International Style has faced criticism for its aesthetic-centric view of modern architecture, a closer analysis provides deeper insight into the book's intentions, the complexity of architectural modernism, and a broader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function in architecture.

키워드 : 헨리 러셀 히치콕, 알프레드 바, 국제양식, 탈기능주의, 반미학적 기능주의, 모더니즘
Keywords : Henry-Russell Hitchcock, Alfred Barr Jr., International Style, Post-Functionalism, Anti-aesthetic Functionalism, Modernism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양식: 1922년 이래의 건축(The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since 1922)』(1932)은 헨리 러셀 히치콕(Henry-Russell Hitchcock, 1903~87)과 필립 존슨(Philip Johnson, 1906~2005)이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이하 MoMA)의 〈현대건축 국제전(Modern Architecture: International Exhibition)〉(1932)을 계기로 전시 도록에 앞서 출판한 단행본이다.[1] 이 책은 당대의 건축적 발전을 '국제(주의)양식'이라는 레이블로 전 세계에 보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자들은 국제양식을 '매스보다 볼륨', '대칭성보다 규칙성', '장식 배제'라는 세 가지 시각적 원리로 단순화해 제시했다. 따라서 그들은 근대건축을 지나치게 환원해 축약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국제양식』에서는 기능주의를 비판하는 의외의 모습이 발견된다. MoMA 관장인 알프레드 바(Alfred Barr Jr., 1902~81)가 머리말에서 1922년부터 10년 간의 근대건축을 '탈기능주의(Post-Functionalism)'라고 명명하기도 했던 것이다. 당초 이 명칭은 "'국제적(International)'보다 명확하고 형성과정을 더 잘 드러내 새로운 양식의 이름으로 제안"된 바 있었다(Barr, 1932). 근대건축사에 관한 핵심적 초기 역사서 중 하나인 『국제양식』에서 모더니즘과 거의 동일시해온 기능주의에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은 특별한 관심과 설명을 요한다. 이는 훗날 전혀 다른 맥락에서 미국의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1932~)이 '탈기능주의'를 주장한 것을 떠올릴 때 더욱 그렇다(Eisenman, 1976).

국내외 연구자들 가운데 『국제양식』이라는 책 자체를

1) 이 책의 2판(1966)과 3판(1995)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어 부제목 'Architecture since 1922'가 빠졌다. 본고는 초판을 기준 텍스트로 하지만 편의상 이를 부제목 없이 『국제양식』으로 적는다.

선입견 없이 진지하게 검토한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Frampton(1980), Curtis(1982), Blundell Jones(2002) 등은 『국제양식』을 〈현대건축 국제전〉의 도록으로 오해하거나 전시 제목을 〈국제양식〉이라고 잘못 서술했고, '탈기능'이라는 예외적 입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간과했다.[2]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건축의 미적 요소"와 결부된 『국제양식』의 기능주의 비판을 놓치게 됐다(Hitchcock & Johnson, 1932).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양식』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거기에 나타난 '탈기능적' 맥락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우리가 국제양식을 기능주의와 동일시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비판했다면, 이 연구는 국제양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기능주의 개념을 재검토해 근대건축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다시 조명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이런 목표와 의의 하에 본고는 『국제양식』, 1920년대의 유관 건축 문헌, 『국제양식』을 다룬 후대 건축 역사서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할 것이다.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국제양식』에 영향을 준 문헌과 상황을 살핀다. 이는 『국제양식』과 〈현대건축 국제전〉에 관한 Riley(1992), Sasaki(1995)의 실증연구 등 여러 문헌에 기반한 것이다.[3] 그리고 3장에서는 『국제양식』 자체의 내용과 기능주의 비판을 분석하며, 거기에 나타난 탈기능적 맥락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기능', '기능적', '기능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Forty(2000), Behne(1926), Adorno(1965)의 문헌을 살핀 뒤, 이를 바탕으로 '탈기능'의 의미를 재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국제양식'의 발명과 평가

2.1 '국제' 개념의 대두와 근대건축운동

산업혁명 이후 유럽 각지의 건축은 철, 유리, 콘크리트와 같은 새로운 재료, 표준 부재, 통일된 공법의 사용을 배경으로 공통분모를 넓혀갔다. 더불어 근대의 교통 통신의 발달은 건축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의 국제연맹 창설에서 보듯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했고, 건축에서도 보편성을 향한 움직임이 고조된다.[4] 세계 보편의 기능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태도의 확산은 자연스러웠다. 이 상황에서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와 루트비히 힐버자이머(Ludwig Hilberseimer, 1885~1967) 같은 건축가들은 근대건축의 국제적인 정신을 선도적으로 제시한다. 바우하우스 초대 교장이었던 그로피우스는 1923년 4월부터 9월까지 〈국제건축(Internationale Architektur)〉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했다(Bauhaus-Archiv Berlin & Droste, 2021). 이를 바탕으로 출간한 것이 바우하우스 총서 제1권 『국제건축』(1925)이다. 여기서 그는 "건축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국가적이다. 그러나 개인, 국가, 인류라는 세 개의 동심원 중 최후의 가장 큰 원이 나머지 두 원을 포함한다"고 하며 건축에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Gropius, 1925). 그리고 공통의 재료, 구조, 기술에 기반한 '신건축(das neue Bauen)'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힐버자이머의 경우 『국제 신건축(Internationale neue Baukunst)』(1927)에서 표준화와 통일성을 특징으로 한 국제건축을 선언했다. "새로운 건물은 양식이 아닌 시공의 문제에 기초"하며 "개인, 지역,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외관"의 건물이 "국경을 초월해" 나타났다는 것이다(Hilberseimer, 1927). 독일의 부흥 노력이 영향을 미친 신건축 관련 출판물들은 수요 및 생산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건축 정신의 확산에서 기인한 근대건축의 국제화를 보여준다(Blundell Jones, 2002).

2.2 근대건축운동의 막전막후

근대건축운동의 국제화는 독일공작연맹의 슈투트가르트 바이센호프 주택전(1927)으로 가시화됐다. 이 전시회는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건축가들이 참여한 국제 행사였다. 비록 이 프로젝트에 내적 갈등이 있었고 결과물에도 이질성이 존재했지만,[5] 바이센호프 주택은 국제적인 건축어휘의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1928년 현대건축국제회의(Congre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 CIAM)의 설립은 근대건축의 국제화를 강화했다. 보수적인 건축 규범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고자 선도적인 모더니스트들이 CIAM 회의에 모여 근대건축의 원리를 토론하고 보급했던 것이다. 창립 회의에 유럽 8개국 건축가 26명이 참석했고, 이후 1950년대 말까지 유럽 각국의 도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CIAM은 근대건축의 교리를 국제적으로 전파해 큰 영향을 끼쳤다.[6]

---

2) 『국제양식』은 전시회보다 먼저 출판되어 전시회 카탈로그의 참고문헌으로 올랐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Sasaki(1995), Kim(2016) 등을 보시오.

3) Riley(1992)는 MoMA 자료를 활용해 전시회 당시 상황을 서술했고 Sasaki(1995)는 『국제양식』과 〈현대건축 국제전〉에 관한 그간의 오해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또한 『Progressive Architecture』의 〈현대건축 국제전〉 50주년 특집호에 게재된 Searing(1982)이나 Kim(2016) 등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개별 국가의(national) 이익보다 국제적(international) 가치가 중시되고 평화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활성화된 분위기는 신건축을 향한 연대와 결부된다. 한편, 독일공작연맹(1907~1934)으로 모더니즘의 기초를 다진 독일은 전후 회복과 세계 질서로의 재편입이라는 목표를 품고 있었다. 국제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긴장, 국제주의와 근대건축 실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Crinson(2017)을 보시오.

5) 이 프로젝트에 나타난 건축가들 사이의 갈등과 건축물들의 이질적 속성에 대해서는 Wilson(1995), Blundell Jones(2002) 등을 참조하시오.

6) 국제적 일치를 추구했던 CIAM이었지만 여기서도 창립 시부터 여러 크고 작은 갈등이 상존했다. CIAM 전반에 대해서는 Mumford(2000)를 보시오.

이 흐름은 대서양 건너 뉴욕 MoMA에서 열린 〈현대건축 국제전〉(1932.2.10~3.23)을 통해 미국으로도 이어졌다.[7] 전시는 근대건축의 현황을 소개하며, 한 달 앞서 출판된 『국제양식』이 제시한 '국제양식'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하는 데에 일조했다. 잘 알려졌듯 『국제양식』은 근대건축의 미학을 인식시키는 틀을 제공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매스보다 볼륨', '대칭성보다 규칙성', '장식 배제'가 그 미학적 원리였다. 그로피우스와 힐버자이머보다 훨씬 더 나아간 『국제양식』은 근대건축에 미적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 실험을 일련의 양식 원리로 정리해 근대건축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했던 한편으로, 시각성 중심의 환원적 서술로 인해 비판을 초래하게 된다. 요컨대, 근대건축의 국제화는 새로운 관점의 출판물, 집단적 운동, 기념비적인 전시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면적으로 전개됐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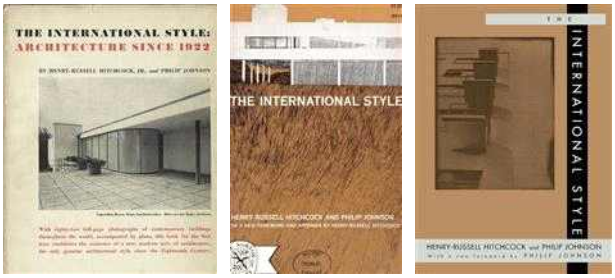
2.3 『국제양식』에 대한 안팎의 평가

20세기 후반 이래 건축사가들은 근대건축을 환원적으로 축약한 『국제양식』을 비판해왔다. 특히 히치콕이 자기 논지에 부적합한 건축물을 배제함으로써, 개별 건축가의 넓은 작품세계와 복잡다단한 근대건축의 흐름을 단순화했다는 것이다(Curtis, 1982; Wilson, 1995; Blundell Jones, 2002). 더욱이 건축의 형태 분석에 대한 천착은 건축과 사회의 관계를 외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다. 일찍이 Tafuri(1968/1980)는 근대건축 비평에서 현재의 필요에 맞게 과거를 수정하는 '작동적(operative)' 경향을 지적했는데,[8] 그 연장선에서 Tournikiotis(1999)도 "객관적 담론처럼 보이는" 『국제양식』이 근대건축 발전의 변증법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서술했다고 보았다. 근대건축을 진보의 과정으로 계보화한 관행을 넘어서려는 이런 성찰은 우리에게 근대건축 서술에 내재한 주관성을 포착하고 모더니즘의 다양한 실상을 인식하게 했던 반면, 국제주의 자체에 대한 탐구를 터부시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제양식』 자체의 내용을 다시 봐야할 이유다.

3. 『국제양식』의 미적 원리와 탈기능적 맥락

3.1 『국제양식』의 구성과 내용

『국제양식』 초판(1932)은 히치콕이 주로 작성한 100여 쪽의 본문과 바의 머리말을 수록했고, 부록에 80개가 넘는 건물 도판을 건축가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실었다. 한편, 이후의 두 판본(1966, 1995)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며 히치콕과 존슨의 서문을 차례로 덧붙였지만,[9] 원래의 본문에는 변화가 없다.



a) 1932 edition b) 1966 edition c) 1995 edition

Figure 1. Covers of *The International Style*, featuring Tugendhat House (1928~30), Villa Savoye (1928~31), and Bauhaus, Dessau (1925~26)

Table 1.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since 1922*

Ch.	Original Title	Korean Translation	Page
·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9
·	Preface	머리말	11~16
1	Introduction: The Idea of Style	서론: 양식 개념	17~21
2	History	역사	22~34
3	Functionalism	기능주의	35~39
4	A First Principle: Architecture as Volume	제1원칙: 볼륨으로서의 건축	40~49
5	Surfacing Material	표면 재료	50~55
6	A Second Principle: Concerning Regularity	제2원칙: 규칙성에 관하여	56~68
7	A Third Principle: The Avoidance of Applied Decoration	제3원칙: 장식의 배제	69~77
8	Architecture and Building	건축과 건물	78~84
9	Plans	평면	85~87
10	The *Siedlung*	집합주택	88~95
·	Illustrations	도판	97~235
·	Indices	색인	237~240

이 책은 10개 장으로 구성됐는데, 편의상 이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보자. 각각 서론부, 본론부, 결론 및 보론부로 볼 수 있다. 서론부에는 1장 「서론: 양식 개념」, 2장 「역사」, 3장 「기능주의」가 포함된다. 1장 「서론: 양식 개념」은 '양식'에 대한 역사적·비판적 개관으로 시작하며, 디자인의 질서로서 양식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 책의 양식 개념은 시간을 거슬러 고딕양식의 구조합리주의에 뿌리를 두며,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함으로써 근대건축의 이념을 이끄는 기본적인 전제로 간주된다. 2장 「역사」는 오토 바그너로 대표되는 "새로운 전통"과 그로피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척자들"을 통해 모더니즘의 진화를 추적한다. 이들은 절충주의와 부흥주의에서 벗어나 통일된 건축어휘를

7) 바는 히치콕과 존슨에게 기획을 맡겼고, 그들은 1년여의 준비 끝에 전시를 올릴 수 있었다. 전시는 건축가, 국가, 집합주택의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전시회 전반에 대해서는 MoMA(1932), Riley(1992), Sasaki(1995) 등을 보시오.

8) 타푸리는 "작동적 비평"을 "과거의 역사를 미래로 투사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실용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이며 "강한 이데올로기적 책임" 아래 "역사를 강제" 한다는 것이다.

9) 특히 1966년판은 히치콕의 서문과 함께 그가 『Architectural Record』(1951.8)에 기고한 「The Twenty Years After the International Style」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사용해 국제양식의 밑거름을 형성했다고 서술된다.[10] 3장 「기능주의」에서는 "새로운 개척자들"과 "기능주의자"를 구별하며, 후자에 대한 비판점을 제시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기능주의에는 한계가 있고 폭넓은 근대건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3장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본론부에는 4장 「제1원칙: 볼륨으로서의 건축」, 5장 「표면 재료」, 6장 「제2원칙: 규칙성에 관하여」, 7장 「제3원칙: 장식의 배제」가 포함된다. 4장과 5장은 모두 국제양식의 첫 번째 원리인 '볼륨으로서의 건축'을 논의한다. 4장은 건물이 단단한 매스에서 가벼운 볼륨으로 전환됨에 초점을 맞췄다.[11] 볼륨은 "전통의 조적 구조"를 대체한 "금속 또는 철근콘크리트"의 "현대 공법"에 기인한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을 나타낸다. 내력벽이 "지지체 사이에 칸막이처럼 삽입되거나" 골조를 둘러싸는 외피로 축소되고, 구조 혁신으로 지지체가 가늘어지면서 필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자유로운 평면이 나타났다. 이처럼 4장이 "견고하고 정적인 매스 효과"를 대신하는 비물질적인 "볼륨 효과"를 다뤘다면, 5장은 "볼륨 경계"를 이루는 "평평한 표면 효과"에 주목한다. 유리와 금속 같은 재료는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 외관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볼륨의 효과를 증대한다. 6장 「제2원칙: 규칙성에 관하여」는 고전적인 대칭의 대안으로 규칙성의 개념을 논의한다. 전통적인 축적 대칭에서 벗어나 골조의 균등한 간격과 부재의 표준화로 인해 규칙적인 평면과 입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규칙성 외에 '비대칭성'과 '수평성'도 고찰된다. 비대칭성은 평면에서 논의되는데, 현대로 오면서 기능이 복잡해지고 디자인이 다양해진 데에 기인한 것이다. 수평성은 규칙성이 수평의 장방형 건물을 염두에 두고 논의됐기에 함께 서술된다. 이는 『국제양식』이 곡선과 사선에 의한 형태나 수직적인 건물을 거의 다루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7장 「제3원칙: 장식 부가의 배제」에서는 고전적인 장식을 지양하고 현대적인 디테일 가공 방법을 주문한다. 이 책에 대한 통념처럼 '무장식'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 글자, 난간, 테라스에서 현대적인 디테일의 활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로써 새로운 재료의 아름다움과 비례의 구현을 강조한 것이다. 머리말에서는 이를 "장식의 부가를 대신하는 재료의 본질적 우아함과 기술적 완벽함, 세련된 비례에 대한 의지"로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결론 · 보론부에는 8, 9, 10장이 포함된다. 8장 「건축과 건물」에서는 예술적 창의성과 영속성의 유무에 따라 건축과 건물을 구별했다. 여기서는 특히 건축이 기본적 기능을 넘어 예술적 목표를 달성함을 시사한다. 반대편의 기능주의자들은 '건축'이 불필요하다고 비판했었는데, 8장에서는 이에 대응해 결함의 원인은 예술성이 아닌 개별 건축의 낮은 품질에 있다고 반박한다. 나머지 두 장에서는 근대건축에서 특징적인 두 가지 주제를 보충적으로 다룬다. 9장 「평면」은 조적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통해 자유로운 평면이 가능함을 밝히고, 새로운 내부 평면을 외부 입면 디자인에 통합해야 함을 논했다. 10장 「집합주택」에서는 집합주택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19, 20세기 도시계획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를 소개했으며, 여기에 내재된 기능주의적 맥락을 서술했다.

3.2 『국제양식』의 기능주의 논의와 탈기능적 맥락

지금까지 개괄한 『국제양식』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그 가운데 '기능주의'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도록 하겠다. 3장 「기능주의」는 서론부 끝에 위치해 서론부와 본론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즉, 3장은 '양식'과 '역사'에 관한 1, 2장과 국제양식의 세 원칙을 설명한 4~7장을 접속시키는 것이다. 내용 면에서 3장은 기능주의와 국제주의를 구별하며 후자를 강조하는데, 이는 책 전반에 흐르는 기능주의 비판의 토대다.

내용을 더 따라가 보자면, 기능주의자들은 "건물을 예술이 아닌 과학"으로 보고 "미적 요소의 중요성, 심지어 존재를 부정"했다고 서술된다. 저자들은 이를 "기능주의 개념의 과장"으로 여기며, 서양건축사에서 "기능과 미학은 상호의존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리스와 고딕 건축에서 "미적 표현은 구조와 기능에 기반"했고, 비올레르뒥, 퓨진, 모리스에게서도 이 관계가 지속됐던 까닭이다. 즉, 기능은 미적 가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유연하게 인식됐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의 반미학적 기능주의자들(contemporary anti-aesthetic functionalists)"은 기능에 대한 경직된 해석을 택했다고 본다. 기디온 같은 비평가는 실용적인 문제를 미적인 문제보다 우선시했고, 한네스 마이어(Hannes Meyer, 1889~1954) 같은 건축가는 "비례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19세기 이데올로기의 불운한 잔재"로 일축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기능주의자들은 "미학적 관점에서 근대의 양식을 논하는 것을 어불성설"로 보았다. 그래서 "디자인에 정성"을 쏟고 "특수 제작한 부재를 사용"하는 것과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장식 일체를" 피한다. "장식과 불필요한 디테일을 지양"하고 건물이 실용성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완벽하게 제공된다면 그것은 외관과 관계없이 좋은 건물"이 된다. 이는 목적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기능과 미학의 통합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기능주의의 반미학적 입장에 대응해, 『국제양식』은 "기술과 경제" 이외의 미적 측면을 간과한 채 "복잡한 건물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논한다. 건축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디자인을 완성하기 이전에 자유

10) 엄밀히 말해 '역사'는 세 단계로 나뉜다. "새로운 전통"을 이룬 바그너, 베를라헤, 베렌스, 라이트 등에 이어, "새로운 개척자들"인 그로피우스, 르코르뷔지에, 오우트, 미스가 나타난다. 이들의 초기작은 '역사'의 제2단계에, 1922년 이후의 작품은 제3단계이자 국제양식에 해당한다. 국제양식의 단서가 "새로운 개척자들"의 초기 작품에서 엿보이지만, 국제양식의 본질은 1922년부터 1931년까지의 작품에서 발견된다고 여긴다.

11) 과거에 "강한 내부 지지체"가 매스의 효과를 유발했다면, 이제 보호막, 칸막이, 덮개와 같은 "연속적 외피"가 중심이 되어 빛과 공기를 잘 유입하는 가벼운 볼륨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로운 선택(free choices)"을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능주의자들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양식 원칙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이들도 기술과 미학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는 건축을 "산업 문명에 종속된 기술"이자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한 미국 기능주의로 확장된다. 그 논의에 따르면, "기술을 강조한 미국 건축가들"은 성공적이었지만 미학은 다시금 소외됐다. 유럽과 미국의 협소한 기능주의를 요약하는 키워드가 "반미학적 기능주의"다. 이 태도는 새로이 대두한 유럽의 국제주의가 기능적 디자인에 미학을 통합하고자 한 것과 대조된다.

기술과 미학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공학과 예술의 조화를 추구한 『국제양식』의 입장을 본고는 '미학적 기능주의(aesthetic functionalism)'라 부르고자 한다. 미학적 기능주의는 미학과 기능의 배타적 관계에 반대하고, 미학이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오히려 '반미학적 기능주의자들'이 미학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미학적인 결과를 생산해 '미학적 기능주의'의 타당성을 강화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양식』의 3장은 기능주의를 국제주의와 구별했고, 기능과 미학의 역사적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기능주의를 비판했던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알프레드 바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탈기능주의'가 '미학적 기능주의'를 지시한다는 사실이다. 기능주의, 정확히는 '반미학적 기능주의'가 간과했던 미학적 측면이 복권된 것이 '미학적 기능주의'이자 '탈기능주의'인 셈이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대두되는 탈기능주의와는 다른 입장에 있다. 『국제양식』의 탈기능주의가 기능주의에 간과된 부분을 되살려 모던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입장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의 탈기능주의는 모더니즘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12]

12) 엄밀히 보자면 『국제양식』의 'Post-Functionalism'은 '탈기능주의'보다 '후기 기능주의'로 번역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기능주의를 벗어나기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1987년 한국어 번역본도 이를 '후기 기능주의'로 옮겼었다.) 그러나 서론에 언급했고 결론에도 언급할 아이젠만의 'Post-Functionalism' Eisenman(1976)이 이 연구의 촉매였고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둘에 동일한 번역어 '탈기능주의'를 채택한다. 접두어 'post'는 '탈'로도, '후기'로도 번역이 되며 상이한 의미를 담지만, 둘 사이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Late Modernism', 'Late Capitalism'처럼 접두어 'late'가 붙어 '후기'로 번역되는 경우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하다.)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는 '탈'과 '후기'의 의미 차를 해소하기보다 그 차이와 '비동일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의미 생성을 궁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모더니티'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헤겔 관념론의 변증법처럼 합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유토피아적 사회 변혁의 실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미학과 개념 철학을 통한 아도르노의 부정성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효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이런 입장은 4.3절이 논하는 아도르노의 개념적 바탕이기도 하고, '동일성' 내에 갇혀있는 듯 보이는 모더니즘(국제양식) 내의 차이를 발견하고 들춰냄으로써 근대건축에 대한 더 넓은 이해의 지평을 얻고자 하는 본고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4. 기능의 다양한 의미와 '탈기능'의 재고찰

4.1 '기능' 개념의 넓은 스펙트럼

『국제양식』이 탈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반미학적) 기능주의를 비판한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다. 즉, 『국제양식』의 탈기능주의적 맥락을 기능의 다의성을 고려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Forty(2000)에 따르면 건축과 관련해 '기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였고, 이후의 건축 담론에 다양한 의미로 등장했다. 그 가운데 1930년 무렵까지의 다섯 가지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과 관련해 '기능'이라는 말을 최초로 언급한 이는 18세기 이탈리아의 카를로 로돌리(Carlo Lodoli, 1690~1761)였다. 그는 '기능(funzione)'을 수학적 은유로 인식해 기계적 힘과 건축 재료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했고, 이 점이 결여된 "고전적 장식 체계"에 반대했다. 둘째, 19세기에 오면 유기체의 전체와 부분 사이의 작동 역학을 설명하는 생물학적 은유로 '기능'이라는 말이 쓰였다. 비올레르뒥(Eugène Viollet-le-Duc, 1814~1879)이 이를 건축 이론에 통합해 디자인의 근거로 여겼다.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세 번째 용법은 생물학적 은유를 확장해 구조적 형태와 사회적 요구, 환경적 맥락의 통합을 강조한다.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 1856~1924)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말하며, 기능적 표현을 사회적·환경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옹호했다. 넷째로 기능은 '사용(use)'을 의미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다섯째로, '기능적'을 뜻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독일어 형용사 'funktionell', 'sachlich', 'zweckmässig'가 영어로는 모두 'funktionell'로 번역됐다는 사실이다. Forty(2000)에 따르면 'sachlich'는 객관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zweckmässig'는 유기적이고 목적 중심의 디자인에 관계하는 단어다. 독일공작연맹 창설에 자극을 줬던 헤르만 무테지우스(Hermann Muthesius, 1861~1927)가 'sachlich'를 사용했고, 이를 독일의 신즉물주의(die neue Sachlichkeit) 또는 신객관주의(the new objectivity)가 이어받았다. 한편, 'Zweck(purpose, 목적)'에서 유래한 'zweckmässigkeit'는 세 번째 용법처럼 유기적 목적을 의미하거나, 네 번째 용법처럼 필요, 유용성을 뜻했다.

Forty(2000)는 1930년대 영어권에서 의미가 축소된 'function'을 다루면서 『국제양식』을 빠트리지 않았다. 물론 그는 『국제양식』의 기능 해석 방식에 비판적이었다. 본고는 그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국제양식』에 나타난 생각에 대한 전적인 거부는 불공평하다고 본다. 르코르뷔지에나 미스 같은 『국제양식』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비교할 때, 한네스 마이어 외에도 엄격한 기능주의를 보인 건축가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 시의 건축가(Stadtbaurat)였던 에른스트 마이(Ernst May, 1886~1970)는 노동자 주택을 저렴하게 대량생산하는 과정

에서 예술적 측면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소 주거(Die Wohnung für das Existenzminimum)'를 주제로 제2차 CIAM(1929)을 주최하며 당시의 건축 및 도시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Mumford, 2000). 또한 르코르뷔지에와 건축평론가 카렐 타이게(Karel Teige, 1900~51)가 '문다네움(Mundaneum)' 계획안(1929)을 둘러싸고 벌인 논쟁에서 알 수 있듯, 근대건축에서 미학과 형식을 부정하고 기능을 우선시하는 입장은 실재했다(Baird, 1974). 즉, 히치콕이 마이어 한 사람의 극단적 경향을 과장함으로써 기능주의를 문제시했다는 포티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면서도 온전히 균형 잡혔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제양식』의 기능주의 인식은 다양한 기능 개념과 독일어 단어의 미묘한 의미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았던 1930년대 초의 산물이었다. 그런 한계가 발견된다면 이제는 '기능'에 관한 여러 의미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국제양식』의 '기능주의' 비판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2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의 구분

아돌프 베네(Adolf Behne, 1885~1948)의 『현대의 목적건축(Der moderne Zweckbau)』(1926/1996)은 1920년대 진행 중이던 근대건축운동을 당시의 현장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한 문헌으로 평가받는다.[13] 그는 여기서 집을 기후, 동물, 적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도구인 동시에 인간의 문화적·유희적 측면을 충족시키는 예술로 보았다. 집이 도구(Werkzeug, tool)이자 놀이기구(Spielzeug, toy)라는 서술이 이를 대변하며, 기능주의(Funktionalismus)는 전자를, 합리주의(Rationalismus)는 후자를 대표한다.[14] 베네에게 기능주의는 대상 건물의 목적에 최적화된 특수한 해법을, 합리주의는 다른 건물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해법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자는 특수 사례에만 과적합할 수 있고, 후자는 기하학과 기계 생산에 기반해 도식화·비인간화될 우려가 있다. 그는 각각의 대표자로 휴고 헤링(Hugo Häring, 1882~1958)과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를 제시했다. 이런 구도는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해오던 통념과 차이를 보인다. 베네는 서양 건축에서 지난 수 세기 동안 예술의 측면이 우세했던 반면, 20세기 초반에는 기능의 측면이 지배적이었다고 인식한다. 이처럼 양자의 중요성에 대한 비중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그에게 탁월했던 것은 어느 한 쪽을 옹호하기보다 둘을 명쾌히 구분하고 각각에 정교한 비평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베네가 기능적(zweckmässig) 접근과 합리주의적 접근을 구분하고 양쪽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직시한 데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 양측 모두 최종적인 답이 아니었다.[15] 물론, 근대건축의 주요 작품을 연대순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기능적 접근이 더 잘 실현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역사적 양식과 예술가의 개성이 지양되는 과정을 보여준 바는 의미가 크다. 그 정점인 3장 전반부에서는 건물을 사용하는 개별자의 특수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기능주의가 덜 기계적이고 보다 인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옹호했다. 대표적으로 헤링의 가르카우 농장 외양간(Gut Garkau, 1922~25)은 개체의 행동 패턴에 부합한 곡선형 디자인을 구현한 까닭에 유기체적인 기능을 실현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건축에서 개별성에 대한 천착에는 한계가 있다. 개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곡선형 건물은 개별 목적에 적합하지만 여러 건물을 나란히 배치하면 공간이 낭비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나아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건물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 이 문제적 상황에서는 직선형의 합리주의적 디자인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베네는 개별적 목적을 넘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건물의 병치나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Behne, 1926/1998).

베네의 시각에서 본 기능주의를 『국제양식』의 시각에서 본 기능주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전자는 특수한 목적에 대한 탐구에 따라 개별 기능을 충족하며, 이후 사회적 기능으로 나아간다. 후자 역시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그런데 후자는 건축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기에, 베네의 분류체계 내에서는 실용주의(Utilitarismus) 성격을 강하게 띤다. 베네는 당대의 건축에서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뿐만 아니라 실용주의도 구분해냈다. 그런가 하면 『국제양식』에서는 베네의 기능주의를 표상하는 헤링과 한스 셔룬의 건축이 배제됐다. 한편, 베네가 합리주의의 대표자로 주목한 르 코르뷔지에의 경우를 살펴보자. 1923년에 집필이 완료된 베네의 『현대의 목적건축』은 초기 르코르뷔지에가 합리주의적 대량생산을 강조한 측면에 주목해, 이를 사회 전체의 목적과 연계시켰다. 베네에게 합리주의의 예술적 성격은, 특수 목적을 추구하느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공동체적 필요 및 놀이의 측면을 환기했다. 반면, 1932년 출판된 『국제양식』은 사보아 주택(1928~31)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구조의 볼륨 효과 및 자유롭고 개방적인 평면에 주목했다. 이처럼 기능주의로 포괄되지 않는 미학적 측면에 대한 베네와 히치콕의 인식은 크게 다르다. 베네가 미학을 사회 전체의 기능과 연결한 것과 달리, 히치콕은 새로운 건축 생산의 조건에 따른 건축 자체의 시각적, 공간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

13) 1923년 탈고되고 1926년 출판된 이 책은 독일어권에서는 "기능주의에 대한 포스트모던적인 비판이 활발해지던" 무렵인 1964년에 재출간된다(Poerschke, 2016). 그리고 1998년에도 다시 나왔다. 영역본은 1996년 출판됐는데, 본고는 영역본을 주로 보되 원어본도 참조했다.

14) 'Zeug' 자체로 도구, 연장을 뜻하여 '작업도구(Werkzeug)', '놀이기구(Spielzeug)'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핀란드의 알바 알토는 건축에서 놀이 혹은 유희(play)가 중요함을 여러 기회에 강조했다. 근대건축에서 기능은 불완전하지만, 심리적·문화적 측면을 포함한다면 온전한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im(2010)을 보시오.

15) 베네가 기능주의를 선호했다고 여기는 이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이해가 있는데, Bletter(1996), Mallgrave & Contandriupoulos(2008) 등을 보시오.

요컨대, 베네는 특수 목적과 보편 목적을 구분하고, 유기체의 개별 목적에서 출발해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을 포괄하고자 했다. 또한 『국제양식』에 묘사된 협의의 기능주의를 뛰어넘는 '유기적' 기능주의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기능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고, 미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사회 전체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3장 후반부에 테오 판 두스부르흐(Theo van Doesburg, 1883~1931)와 J. J. P. 오우트(Jacobus J. P. Oud, 1890~1963)의 견해를 소개하며 네덜란드 건축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맥을 같이한다. 히치콕과 존슨 역시 건축에서 미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합리주의를 옹호했지만, 베네는 그들만큼 미학과 합리주의로 기운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베네의 근대건축 인식을 탐구하고 『국제양식』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기능주의에 대한 이해가 1920~30년대에 매우 다각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베네가 『현대의 목적건축』 머리말에 언급했듯, 우리는 건물에 도구적 속성과 놀이적 속성이, 또는 기능과 미학이 공존하며 서로 분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도르노의 「오늘날의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기능의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보자.

4.3 '무용의 용'과 국제양식의 탈기능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 1903~69)는 「오늘날의 기능주의(Funktionalismus Heute)」(1965)에서 기능과 장식의 이분법을 고정관념으로 파악하고 문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재건 단계에서 기능주의의 복귀를 감지한 맥락에서였다. 이 시기의 기능주의는 건축에서 기능과 예술의 차원을 분리 가능한 것으로 보고, 후자보다 전자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아도르노는 응용미술(Kunstgewerbe)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난 아돌프 로스(Adolf Loos, 1870~1933)의 장식 거부를 언급하면서, 이런 구분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장식과 범죄(Ornament und Verbrechen)」(1908) 출판 당시에는 기능과 미학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이제 둘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술적이고 장식적인 건물이 시간이 지나 문화적인 의미를 포함하면, 그 의미작용이 일종의 기능이 되기 때문이다. 즉, 미적 접근방식이 무용(無用)하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기능적 건물도 시간이 지나 장소적·사회적 맥락의 변화로 용도를 상실하면 장식적 건물로 남는다. 그에 따르면 변화에 무관하게 기능만을 고수하는 것은, 달리 말해 "양식에 대한 절대적 거부는 자체로 하나의 양식이 된다"(Adorno, 1965).

이 같은 아도르노의 논의는 "유용과 무용, 자율적 예술과 목적 지향적 예술, 상상력과 장식"의 상호관계를 환기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무용의 용'은 칸트가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1790)에서 취미판단을 고찰하고자 도입한 '무관심성(ohne Interesse)'과 "무목적의 목적(Zweckmäßigkeit ohne Zweck)"에 연계된 것이다(Adorno, 1965). 이런 입장에서 '목적 있는(zweckmäßig, purpose-ful)'은 '목적 없는(zwecklos, purpose-free)'과 굳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 「오늘날의 기능주의」에서 아도르노의 논의는, 건축에 "미학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미학적 성찰은 "'목적 있는'과 '목적 없는'의 현재적 대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그의 결론적 논점은 예술이 '자율성'을 통해 대안적 세계의 비전을 줄 수 있다는 그의 미학적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Adorno, 1970).

아도르노의 「오늘날의 기능주의」는 근대건축운동이 한창이던 1920~30년대의 기능주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뒤돌아보게 한다. 특히 목적과 무목적의 경계를 허물고 "미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은 『국제양식』의 탈기능주의적 맥락이 강조한 미학적 측면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아도르노의 미학과 『국제양식』의 미학이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의 논점이 목적과 효율에만 주목하는 '반미학적 기능주의'와 달리 '미학적 기능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기능주의」와 『국제양식』은 결국 미학적 잠재성이 기능적 건물을 더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는 1932년 출판된 『국제양식』의 머리말에서 알프레드 바가 제시한 '탈기능주의'의 의미와 맥락을 탐구하여 근대건축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 바탕은 이 책이 기능주의에 대한 통상의 인식과 전혀 다른 미학적 기능주의의 차원을 논한다고 본 것이다. 본고의 논점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양식』에서 조우하게 되는 탈기능주의의 맥락은 뜻밖으로 읽힌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건축의 모더니즘은 기능주의로 치환되고, 그 기능주의의 중심 영역을 '국제양식'이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로, 『국제양식』에 대한 진지한 독서는 근대건축 및 국제양식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 이해가 상당히 단순화됐음을 말해준다. 당대 건축의 양상은 훨씬 다층적이었고 다양한 이해가 공존했다. 『국제양식』이 '반미학적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미학적 기능주의의 측면을 부각시켰고, 후자를 '탈기능주의'라는 용어로 표출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물론 아돌프 베네가 『현대의 목적건축』(1926)을 통해 당대의 기능주의를 합리주의와 구분해 낸 것, 그리고 훗날의 아도르노가 「오늘날의 기능주의」(1965)에서 기능과 장식의 이분법을 뛰어넘고자 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셋째, 『국제양식』이 미학적 측면에 경도된 나머지 '매스보다 볼륨', '대칭성보다 규칙성', '장식 배제'라는 세 가지 시각 원칙에 지나치게 매몰됐고, 그래서 건축의 복잡다단한 콘텍스트와 사회적 의미를 축소한 결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건축의 협소한 기능적 명령을 넘어 미적 가치를 지향한 지점의 가치는 복권될 필요가 있다.

『국제양식』은 근대건축의 다양한 실험과 사회적 가

치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역사적 양식에 대한 모더니스트의 거부로 인해 배제됐다고 잘못 인식된 건축의 예술적 차원을 재고하고자 했다. 오늘날의 다원적 맥락에서 양식 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양식』의 시각 원리는 선험적 규범이기보다 기능주의의 실용성과 공학을 넘어 대안적 공통 기반을 모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베네의 기능주의 서술은 미학적 기능주의와 다른 차원에서 기능과 미학의 상호작용을 논하기 때문에, 『국제양식』의 탈기능 논의를 확장·심화할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아도르노의 기능주의 이해 역시 그렇다.

본고는 『국제양식』의 기능과 탈기능의 의미를 당대의 맥락에서 조명했다. 책에 소개된 건축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거기에 함축된 탈기능적 맥락을 후대의 탈기능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후속 연구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아이젠만의 '탈기능주의'(1976)는 르네상스 이후 현대까지 건축문화를 지배한 인간 중심주의에 도전하면서 기능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국제양식』이 근대건축의 절충적 역사주의에 대한 배격 이후로 목적과 효율성에 집중됐던 관심을 미학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면, 아이젠만은 기능과 형태 사이의 균형 모색을 청산하고 인간이 개입한 건축에 내재한 인간 중심성 일체를 극복하려 한 것인데, 더 자세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자.

REFERENCES

1. Adorno, T. W. (1965). Functionalism Today, in: Leach, N. (ed.) (1997).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London, Routledge, 5-18.
2. Adorno, T. W. (1970). *Ästhetische Theorie*, eds. Adorno, G., & Tiedermann, R. Frankfurt am Main, Suhrkamp.
3. Baird, G. (1974). Architecture and Politics: A Polemical Dispute, A Critical Introduction to Karel Teige's "Mundaneum," 1929 and Le Corbusier's "In defense of architecture," 1933, *Oppositions*, 4, 80-82.
4. Barr Jr, A. (1932). Preface, in: Hitchcock, H. R., & Johnson, P. (1932). *The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since 1922*, New York, Norton, 11-16.
5. Bauhaus-Archiv Berlin & Droste, M. (2021). *Bauhaus: 1919-1933*, Köln, Taschen.
6. Behne, A. (1926). *Der Moderne Zweckbau*, München, Drei Masken. (Reprint: Berlin, Gebr. Mann, 1998)
7. Bletter, R. H. (1996). Introduction, in: Behne, A. (1996).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M. Robinson, Trans.), Santa Monica CA, Get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1-83. (Original work published 1926)
8. Blundell Jones, P. (2002). *Modern Architecture Through Case Studies*, Oxford, Architectural Press.
9. Crinson, M. (2017). *Rebuilding Babel: Modern Architecture and Internationalism*, London, I.B. Tauris.
10. Curtis, W. J. R. (1982).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Oxford, Phaidon.
11. Eisenman, P. (1976). Post-Functionalism, in: Hays, K., M. (ed.) (1998).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Cambridge MA, MIT Press, 236-239.
12. Forty, A. (2000).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New York, Thames & Hudson.
13. Frampton, K. (1980).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14. Gropius, W. (1925). *Internationale Architektur (Bauhausbücher 1)*, München, Langen.
15. Hilberseimer, L. (1927). *Internationale Neue Baukunst*, Stuttgart, Hoffmann.
16. Hitchcock, H. R., & Johnson, P. (1932). *The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since 1922*, New York, Norton (2nd ed., 1966; 3rd ed., 1995).
17. Kim, H. S. (2010), The Concept of Aesthetic Play and Alvar Aalto's Architectur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9(2), 67-82.
18. Kim, H. S. (2016). 'Modern Architecture: International Exhibition' at MoMA, New York and the International Style, in: Kim, H. S., & Kang, T. W. (2016). *Architecture Class: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Seoul, Zip, 151.
19. Mallgrave, F. H., & Contandriupoulos, C. (eds.) (2008). *Architectural Theory, Volume II: An Anthology from 1871 to 2005*,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 Mumford, E. (2000).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Cambridge MA, MIT Press.
21. MoMA (1932). *Modern Architecture: International Exhibition*,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2. Poerschke, U. (2016). *Architectural Theory of Modernism : Relating Functions and Forms*, New York, Routledge.
23. Riley, T. (1992). *The International Style: Exhibition 15 and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Rizzoli.
24. Sasaki, H. (1995).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Style*, Tokyo, Sagami Shobo.
25. Searing, H. (1982). International Style: the Crimson Connection, *Progressive Architecture*, 63(2), 88-91.
26. Tafuri, M. (1980).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G. Verrecchia, Trans.), London, Granada.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27. Tournikiotis, P. (1999).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Cambridge MA, MIT Press.
28. Wilson, C. St. J. (1995). *The Other Tradition of Modern Architecture: The Uncompleted Project*, London, Academy Editions.

(Received Aug. 19, 2024/ Revised Sep. 19, 2024/ Accepted Mar. 24, 2025)